불볕더위에 붉게 타버린 단감 보며 한숨만

르포-폭염 여파 '일소현상'으로 단감 농사 망친 장성 가보니

"사람으로 치면 2도 화상…수확해봤자 상품가치 없어 농사 포기"

남면 일대 40% 피해…인근 사과 과수원도 수확량 60% 나 줄어

"단감 농사만 20여년 지었는데 이번 같은 피해는 처음입니다. 당분간 이런 불볕더위가 계속된다는 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13일 오전 장성군 남면 한 단감 과수원에서 만난 조정래(53)씨는 불볕더위로 붉게 타버린 단감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장성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22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단감과 사과 등 과일에 일소현상(日燒現象·햇볕에 과일이 데여 변색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만9173㎡(3만평) 규모인 조씨의 단감 과수원에도 폭염 햇볕에 노출돼 노란 빛을 띠거나 붉게 변색된 단감이 가득했다.

조씨는 "이런 때 30도 안팎을 유지해야 단감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좋은 환경"이라며 "사람도 낮 최고기온이 3~5도 차이만 나도 고통을 겪는데 과일의 경우 더 민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색된 단감은 사람으로 치면 최소 2도 화상을 입은 것이나 다름없다. 새들이 익은 단감으로 착각해 쪼아먹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소현상이 발생한 과일은 수확해봤자 상품가치도 없다. 올해 농사는 포기했다"고 울먹였다.

인근에서 5만6198㎡(1만7000평)의 사과(홍로·부사) 과수원을 운영하는 서정민(45)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씨는 "올 봄 이상저온·낙과피해에 이어 최근 일소현상까지 겹쳐 사과농사를 망쳤다"며 "올 수확량은 지난해 대비 40% 수준에 머무를 것 같다. 추석 특수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남 농촌 곳곳에서 사상 유례 없는 단감, 사과 등 과일이 화상을 입는 '일소현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도 과수농가를 뒤덮은 폭염피해 영향 등으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3일 장성군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기준 670개 농가가 단감농사를 짓고 있으며, 재배면적 398만㎡에서 평균 6801t을 생산하고 있다. 또 전체 210농가에서 사과 220만㎡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4월 이상저온 피해를 시작으로 지난 6월 낙과피해, 그리고 여름 폭염 피해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장성군 남면 일대를 기준으로 단감 40% 이상에서 일소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면 단감은 타 지역 단감보다 단맛과 품질이 뛰어나 선물용으로 판매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단감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사과 주산지인 장성에서는 단감과 함께 사과의 일소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영농현장에서 만난 과수농민들은 올해 같이 여러 악재가 겹친 해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성군 농업 기술센터는 최근 과실에 발생한 일소현상의 원인으로 오랜 가뭄과 연일 33도가 넘는 폭염을 지목했다.

단감의 경우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인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가뭄이 찾아오면서 열매의 성장이 더뎌졌다는 게 기술센터의 설명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폭염으로 강한 직사광선이 연일 내리쬐면서 햇볕에 노출된 부분에 일사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조재형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담당은 "장성의 단감 과수원은 대부분 경사진 곳에 있는 탓에 농업용수 시설 등이 없어 타 지역보다 일소현상 피해가 더 큰 듯 하다"면서 "칼슘제나 석회가루로 알려진 탄산칼슘을 열매에 도포할 경우 어느 정도 일소현상을 예방할 수 있긴 하지만, 열매 표면에 자국이 생겨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규모의 농업분야 폭염피해 긴급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과 영양제 제공하고, 일소피해 과실을 조기 제거하고 폐기토록 재해복구비(ha당 175만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장성=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일소현상(日燒現象)
햇볕에 과일이 데여 변색되는 현상

13일 오전 장성군 남면의 한 단감 과수원에서 주인 조정래씨가 표면에 화상을 입은 단감들을 살펴보고 있다.
/장성=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SNS 통해 동거…끔찍한 '살인 참극'으로

살인 탄로 우려 암매장 시신에 황산 부어…20대 남녀 5명 구속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나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호우로 야산에 암매장한 시신이 노출되자, 다시 꺼내 황산을 붓고 다른 들판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은 "살인, 시신 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빌라에서 B(여·23)씨를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각자 매월 10만원씩 내기로 하고 이 빌라에 함께 살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직장에 다니지 않던 B씨는 돈을 내는 대신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2명은 사건 당일 '살림을 소홀히 한다'며 B씨를 5~10분간 폭행했다. 이후 이들 5명은 B씨를 방으로 옮겨 방치했고, 그가 숨졌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4~5시께 차에 실어 빌라에서 20여㎞ 떨어진 야산을 이동한 뒤 시신을 묻었다.

이들은 이후 시신 부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암매장 이후 5~6차례 야산을 찾는가 하면, 군산에 많은 비가 쏟아진 지난달 말 토사 일부가 유실돼 시신이 노출되자, 다른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재매장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에 황산을 뿌린 뒤 김장용 비닐로 시신을 감싸고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매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가 지인에게 '사람을 암매장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 처벌 면할 듯

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후송 중이던 환자가 숨지고 동승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입건된 119구급차 운전자 최모(38) 구급대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일보 2018년 7월3일자 6면〉

광주북부경찰은 "환자 김모(91)씨의 부검 결과 사인(死因)이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나타나 교통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고, 환자 이송 시 신호위반이 관련 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판단돼 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1시께 음식물이 목에 걸려 심정지 상태에 빠진 환자 김씨를 태워 119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최씨를 포함한 구급대원 등 4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환자는 다른 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은 신호·속도 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 없다.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징역 10개월

쌍나팔

○…법원이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실형을 선고.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안모(여·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는 것.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폭염 틈타 농촌 돌며 과수원 농산물 절도 2명 적발

복숭아·오토바이 훔쳐

담양경찰은 "농촌 마을을 돌며 수확을 앞둔 복숭아와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6)씨를 구속하고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담양과 장성 일대 복숭아 과수원 4곳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복숭아 80kg과 100cc급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염으로 농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오후 시간대 과수원에 몰래 침입해 복숭아를 딴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복숭아는 주변 사람들이나 소규모 나들가게에 팔아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담양=정재근 기자 jjg@kwangju.co.kr

세월호 직립 후 첫 유골 1점 수습…사람 앞니 추정

세월호 직립 후 선체 수색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앞니)가 추가로 수습됐다.

13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목포신항에 있는 세월호 3층 객실부 협착구역에서 사람의 앞니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다.

현장수습본부는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이날 이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 세월호에서 유골이 수습된 것은 지난 5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직립 직후부터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21075	1	서구 치평동 1168-1 중흥아파트 112동 2층 205호 84.93㎡	아파트	253,000,000 253,000,000	
2018타경 112	1	서구 치평로35, 205동 3층 303호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 122.260㎡	아파트	390,000,000 390,000,000	
2018타경 310	1	동구 금남로185, 9층 1116호 [금남로5가, 금남로에이엠시티하이클래스] 15.169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2018타경 402	1	광산구 월곡산정로80, 2동 13층 1302호 [월곡동,하남금호타운] 56.69㎡ [토지별도등기있음]	아파트	115,000,000 115,000,000	관리비2017.5월분부터미납됨
2018타경 1023	1	광산구 신창로161번길34, 304동 1층 103호 [신창동,신창3차부영사랑으로] 59.7480㎡	아파트	169,000,000 169,000,000	관리비320,000원 미납됨[2018.2.19 현재]
2018타경 1399	1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153, 102동 10층 1003호 [남평강변도시유성그린파크] 59.724㎡	아파트	97,000,000 97,000,000	
2018타경 1481	1	나주시 대호동 1020 대방노블랜드1차아파트 103동 21층 2106호 84.97㎡	아파트	174,000,000 174,000,000	
2018타경 1733	1	광산구 무진대로231번길13-5, 3층 303호 [우산동,휴로스주상복합빌딩] 28.4425㎡	아파트	73,000,000 73,000,000	2018.2.12.현재관리비1개월분미납
2018타경 60909	1	동구 산수동 689 두암그린파크 107동 15층 1501호 84.90㎡	아파트	172,000,000 172,000,000	2018타경3647[중복]
2018타경 61629	1	광산구 수등로287, 109동 7층 702호 [신창동,신가부영아파트] 84.9873㎡	아파트	202,000,000 20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7타경 15704	1	북구 양산동 274-21 175㎡ 제시외 창고 등 46.84㎡	대	122,635,140 122,635,1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 하서로339번길 18-1 1층60.39㎡ 2층36.18㎡ 부속건물 변소1평1.62㎡	단독주택		
2017타경 20683	1	영광군 영광읍 신월리 655-1 446㎡	대	30,789,060 30,789,0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영광군 영광읍 신월로2길 113-30 83.68㎡ 제시외 창고 등 94.11㎡	단독주택		
2017타경 20997	1	북구 오치동 1041-12 200㎡	대	252,174,660 252,174,66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북구 송월로20번길 13-8 1층103.63㎡ 2층93.95㎡ 제시외 다용도실 30㎡	다가구주택		
2018타경 1597	1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84-2 66㎡	대	6,012,200 6,012,20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예한함.2018타경62776[중복]
		담양군 담양읍 담주1길 9-11 29.42㎡[물건번호1:국치한지분2/11전부.지분매각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소재[㉠~㉣]]	단독주택		
2018타경 60527	1	북구 우산동 201-51 111.4㎡	대	106,673,400 106,673,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현재공가로지하실침수등확인요
		북구 동문대로97번길 32-4 62.86㎡ 지하실 11.88㎡ 부속건물 변소2.0㎡ 제시외 가추 등 13㎡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19287	1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74-1 18739㎡[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수목있음.경계부분에분묘소재.매각대상아닌지중급수관시설확인요]	전	169,904,500 169,904,5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3,4상사화구근제외.목록3매각대상아닌화장실소재
		동소 75 1068㎡	답		
		동소 75-2 3405㎡	답		
		동소 78-1 1321㎡	답		
2017타경 19867	1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490 1580㎡[수목토지에포함평가.지적상맹지]	전	25,376,000 25,37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수기소재
2017타경 20553	2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784 1554㎡[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5,540,000 15,540,000	2018타경129[중복]
2018타경 2866	1	화순군 동복면 읍애리 612-2 661㎡	답	8,130,300 8,130,3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60176	1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761 248㎡ 제시외 매실나무 28주	전	12,020,000 12,0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평가
	2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151 559㎡ 제시외 백일홍 120주	전	26,206,000 26,20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평가
	3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721 1098㎡ 제시외 감나무 100주	전	53,018,000 53,01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평가
2018타경 61179	1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810 722㎡[농작물매각제외]	전	9,602,600 9,602,6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18079	1	북구 안산로47-4, 3층 303호 [오치동,오치동도나우아파트] 오피스텔 49.6967㎡	오피스텔	142,000,000 142,000,000	
2017타경 19959	1	동구 동계천로105, 1층 106호 22.50㎡	근린시설	29,000,000 29,000,000	
[자동차,중기]					
2018타경 7328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사암로748, 2층[도천동] 등록번호:94어0352 차명:대우25톤카고트럭[김정근2018.5.31수리비잔금금21,909,000원유치권신고있으나성립여부불명]	건설기계	55,000,000 55,000,000	보관장소:광주북구연제동1044.연식:2012
2018타경 63526	1	사용본거지:나주시 반남면 반나로140 등록번호:86저3381 차명:코란도 스포츠 연식:2015	자동차	18,000,000 18,000,000	보관장소: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8. 8. 30.[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9. 6.[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1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현주